# ['생태계 보물섬, 제주' 그 百年의 기록<1>]제주자연 100년전부터 세계가 주목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입력 : 2004. 01.01. 00:00:00

프롤로그 / 기획을 시작하며

21세기의 비전은 자원이다. 아름다운 땅, 제주도는 자연유산의 보고이다. 제주 자체가 거대한 생태계이기 때문이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희귀동·식물들의 서식지, 지하의 신비경을 연출하는 용암동굴과 오름들, 이 모두가 천혜의 자연유산이다. 제주의 자연유산이 세상에 비로소 알려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1백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의 세가지 보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식물이 외부세계에 알려진 것이 올해로 1백년이 된다. 식물 뿐만이 아니다. 곤충과 조류 등 동물상과 제주의 독특한 지질·화산체가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다. 제주 자연유산에 대한 관심은 우리 나라에서도 가장 높았고 연구 역사도 맥을 같이한다. 제주 섬이 베일에 쌓인 보물 덩어리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주의 자연유산이 세상에 빛을 보기 시작한지 1백 년이 지난 현재 제주자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려는 움직임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제주의 자연유산에 대한 기록과 예찬은 지금으로부터 5백년 전인 김정의 '제주풍토록'에도 나타난다. 제주풍토록은 제주의 기후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식용이나 약재로 널리 이용했던 자생식물들도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최근 연구하고 있는 '민족식물학'은 바로 우리의 선인들이 자연 자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용했는 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학문적 연구와 부(富)의 원천으로 제주 생태계의 가치를 재평가한 사람은 서구인과 일본인이었다. 식물을 비롯해 곤충, 동물, 조류연구의 태동이 모두 그랬다.

제주의 식물이 외국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19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주인공은 일본인 학생이었다. 지금으로부터 꼭 1백년 전의 일이다. 학자들은 이를 제주도 근대 식물연구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그 이후 1906년 다케신부가 수만 점의 식물표본을 유럽의 대학이나 박물관에 기증하거나 매각함으로써 제주의 식물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식물학자들은 다케가 제주에 머물렀던 기간이 한국 식물분류학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긴 때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제주도의 식물이 제주도 세가지 보배(언어, 수중자원, 식물)중 하나로 알려지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부터 출발한다.

한라일보

제주도의 곤충이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된 것은 1847년이다. 이는 우리나라 곤충이 세계 학계에 발표된 최초의 일이지만 1906년 일본인 이치가와가 제주도의 곤충 전반에 걸친 최초의 논문을 발표한 것이 제주곤충연구의 시발이 된다. 제주의 곤충은 일본인을 중심으로 외국 학자들에 의해 그 중요성이 높이 평가되어왔다.

이후 석주명은 1930년대 나비를 중심으로 제주도 곤충에 관한 논문을 집대성하기 시작해 제주도 곤충연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석주명은 곤충 뿐만 아니라 식생과 제주학 연구에도 주력, 큰 획을 그었다.

제주의 조류가 학술적으로 기재된 것은 1909년이 처음이다. 한일합방 후에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한 연구가 본격화됐다.

20세기 후반기를 풍미했던 산업 중 하나가 반도체 산업이었다면 21세기는 생물 산업이라는데 이론이 없다. 국가별로 우수한 유전자를 확보하려는 유전자 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21세기는 보유한 유전자원의 양과 질에 따라 국부가 좌우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선진제국에서는 자국의 유전 자원은 물론 전 세계적 규모로 유전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까지도 국내 곳곳을 탐사, 4천여 종의 자생 식물을 채집해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진제국은 이미 1세기 전부터 '식물 유전자원 확보'에 혈안이 되어 왔다. 해외 각국의 주재 영사관에 작물도입 임무까지 부여하며 종자확보에 주력해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 결과 미국은 40만점, 중국은 35만 점, 일본은 20만 점의 식물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간 지역간 '보이지 않는 전쟁'이 1백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난 현재 다시 재연되고 있다. 이른바 '신유전자원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생태계 보물섬, 제주 / 그 백년의 기록'은 다시 1백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사와 족적을 남긴 인물, 외국의 자원화 사례, 보전실태, 생명공학 시대 등을 중심으로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기록하는 것은 제주의 가치와 21세기 비전을 찾는 작업이며 우리의 정신문화를 가다듬고 살찌워 나가기 위한 작은 실천이다. '제주생태계 백년의 기록'은 제1부 '식물자원은 제주의 보배'를 시작으로 곤충, 조류 등 동물상과 지질분야를 차례로 종합 조명할 예정이다.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라일보